

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행사 전반적인 부분

1. 행사의 기초부분 -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 주제 선정이 적절하였는가

이번 여성제는 강연부터 외부 행사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아내 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폭력의 문제를 여성제라는 주제의 중심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행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주제가 조금은 협소해졌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밀도 있게 연결되어서 전체적 내용전달이 잘 되었다고 본다. 종합선물세트 여성제에서는 기초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가 잘 정해졌고 기초에 맞는 행사들이 준비되어서, 기초가 잘 살았다고 본다.

2. 행사 제목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여성제 제목으로는 잘 안맞아 보이기도 했는데. 멋진 이름임에는 분명하다. '여-' 나 'femi-'를 쓰지 않고도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이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는 제목이었다.

3. 행사 기간

여성제는 연고제 다음주에 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버렸다. 연고제 기간을 이용해서 선전이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고제 다음주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고제 이전은 개강하고 며칠 안돼서 학교가 너무 정신 없기도 하다. 온갖 동아리들이 학관 앞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연고제 홍보도 시끄럽다. 연고제 이전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정신없이 연고제를 보내고 여성제가 소박하게 진행되어서 시기적으로도 학교 분위기랑 잘 어울린 것 같다.

4. 선전

* PC(행사전 2, 정문 9?, 민주광장 5, 외술관 1, 위당관 2) : 행사 프로그램 소개 피씨와 내용 피씨를 같이 쓴 것은 참 좋았다. 보통 행사 일시 장소만 들어간 피씨를 거는데, 성매매, 성폭력, 아내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씨들도 함께 걸려 있어서 여성제 행사 내용도 잘 전달된 것 같다. 세부 주제별로 내용 피씨를 좀더 많이 써서 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상의 이유로 가로 피씨를 걸지 않았는데, 나무 피씨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연고제 기간에 가로피씨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없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았다.

* 포스터(300매) : 초대형 사이즈 매우 칼라풀한 포스터가 나왔다. 포스터 이미지가 매우 자극적이었고, 일탈의 색색깔 편집도 이미지를 한층 강조하였다. 포스터에 중요 행사만 넣은 것이 여유 있어 보였다. 300부 열심히 붙이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이 남았다. 연고제 기간에 제대로 붙일 수 없었던 것이 컸던 것 같다. 포스터가 좀더 일찍 나왔으면 많이 붙였을 텐데, 온갖 건물에 각종 연고제 관련 포스터 때문에 붙일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먼저 붙여놔도 연합방송제 같은 포스터가 위에 덧붙여졌다.

* 전체리플렛 여성제 전체 프로그램이 잘 소개된 별 무리 없는 리플렛이었다.

* 영화제리플렛 영화 소개만 들어간 한면이 칼라인 리플렛을 만들었다. 표지 이미지가 무섭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감수성이 다른가보다..) 열심히 잘 뿌려서 후회 없다.

* 데이드림 5호 데이드림 5호는 '데이드림'이면서도 여성제 행사 자료집이었다. 이 둘 모두를 잘 충족시켰다고 본다. 어쩌면 데이드림 자체가 시작부터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 아침 선전전, 채플선전전 여성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리플렛 배포나 부스 설치를 하였다.

★ 준비단계 평가

그래도 비교적 일찍 기획회의를 하고 기초를 정하고 실무 준비를 했다. 물론 처음 짰던 일정 보다는 많이 뒤쳐지기도 했지만, 리플렛, 포스터, 자료집 등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영화 선정이나 강의실 등이 빨리 정해지지 않아서 늦춰졌다. 역시나 강의실이 제일 문제일 듯.

★ 행사별 평가

1. 학관 로비 전시회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관 로비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제가 한다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렸던 것 같다. 책이랑 자료집만 간단하게 분류해서 정리해 놓았을 뿐, 전시와 관련된 다른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근데 책 소개자보 붙이고 주제 분류표 만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는 그냥 전시해 놓은 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9시 전부터 설치를 해도 10시쯤 다 정리되는 것을 보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2. **중도 앞 자보전** 자보전은 여성제의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강연이나 영화제에 안오는 사람들에게도 자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보는 매우 열심히 수집장 만들어놨는데, 정작 붙일 게시판이 없어서 빨래 자보로 급조되었다. 여성제 기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고해서 자보가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지만, 준비할 때도 재밌었고 내용도 알차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서 좋았다. 자보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만화나 사진 등을 이용했던 것이 자보를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은 많이 필요했지만 잘 한 것 같다. 바람만 안불었으면 빨래 자보도 귀엽고 좋은 것 같다. 웬지 게시판은 무겁고 커보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보인다.

3. **중도 앞 부스설치와 서명운동, 소망달기** 중학에서 반쪽 천막을 빌려서 여성제 부스로 사용했다. 수요일엔 비가 오고, 목요일에는 날씨가 추워서 야외 부스는 이틀밖에 하지 못했다. 부스에서 한 가장 큰 행사는 성매매 없애기 서명운동이었던 것 같다. 소망달기도 야외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다. 각의 유일한 참여행사로 소망달기를 기획했는데 잘 하지 못해서 아쉽다.

중도 앞 부스설치와 서명운동, 소망달기

4. **흐름의 퍼포먼스**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기획단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흐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개막식 퍼포먼스가 기획단에 부담을 안주어서 이전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좋았던 것 같다. 수업 때문에 퍼포먼스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이 부분은 평가를 못하겠다.

5. **정희진 선생님 강연**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했는데, 정말 예상을 빗나갔다. ^^ 강연은 매우 다채로웠고 약간 정신없으면서도 매우 많은 내용을 다뤘다.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주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멋진 강연자를 한분 더 만나게 되어서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페미니스트 버라이어티 스탠딩 토크쇼(혹은 만두만담)'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 (위당관 자치강의실은 프로젝터 등의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당관 작은 강의실에서 영화를 틀 때는, 학생회에서 강의실을 빌리고 기자재 관련해서 문대 사무실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2)

6. **김성희 선생님 강연** 선생님이 행사 시간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다. 행사 자체가 김성희 선생님이 오셔서 강연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기획 자체가 없어서 강연이 끝나고서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5시쯤 먼저 만나서 대중 강연할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참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도 하지 못했다. 매우 불안해서 수업 끝나고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7. **비즈공예만들기** 작년 여성제 때 한 행사를 그대로 가져왔다. 재료를 후원받아서 재료 준비에 신경을 안써서 돼서 다행이었다. 비즈본이랑 얘기를 잘 못 하는 바람에 재료가 부족하고, 색깔이 단순해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행사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여학생만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스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지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언니들이 매우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서 특히 좋았다.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잘 해서 별 무리 없는 행사였다고 본다. 행사 진행할 때 춘추랑 상경신문 기자가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8. **김현미 선생님 강연** 김현미 선생님의 '고별' 강연회를 잘 치렀다. 강의실 때문에 또 정신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가까운 외솔관02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강의실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김현미 선생님은 고정 팬이 있어서 사람들도 대중 많이 왔고, 강연도 선생님이 잘 아는 부분이라서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의 강연을 여러 번 들어서인지 몰라도, 새로움과 산뜻함이 이제 약간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

9. **'어느 멋진' 영화제** 애니메이션과 단편 합쳐서 총 16편을 상영했다. 데이드림,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순으로 틀었다. 영화가 좀 지겹기도 하고, 장편 극영화와는 다른 단편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용 전달에 약간 불친절해보일 수도 있는 단편들이 주로 상영된 것 같다. 마지막의 '탐폰 설명서' 같이 명확하고 단순하고 재밌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학내에서 결코 상영된 적이 없는 여성 단편 영화들과 여성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10. **여성지도** 지도에 내용이 꽤 많았다. 바닥에 까는 것 보다는 게시판 같은데 붙이는 것이 내용 전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여성지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피해가는 무엇정도로 전략해버렸다. 학관 앞 게시판에 여성지도와 지도 설명하는 내용을 같이 붙였으면 사람들이 보다 많이 봤을 것 같긴 하다.

11. **교양 체육** 교양 체육에 대한 설문을 기획했다가 여성제 기간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서작성

뭉

1. 여성제 관련 회의

9월달에는 최종회의 빼고는 참석한 적 없다. 그러므로 기조나 기타 결정 사항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 결정사항을 그냥 따를 예정이었다. 최종회의 때 기쁘게 이것저것 하고 싶었지만 그 주에 과제가 유난히 많아서 기쁘게 하지는 못하였다. 분담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여성제 관련 선전 자료들- 포스터, 전체 일정 리플렛, 영화제 리플렛, 데이드림

다른 것은 다 컬러인데 전체 일정 리플렛만 흑백이라서 뭔가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었다. 지금도 왜 영화제 리플렛이 컬러고 일정 리플렛이 흑백인지는 잘 모르겠다.(회의 때 안 와서 그런 거겠지--_) 하지만 컬러였기 때문에 선전 효과는 더 좋았던 것 같다. 받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몇 명 보았다. 심지어 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포스터는 무섭다는 사람이 대부분. 데이드림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내용과 관계없이 선전 자료들이 일괄적으로-데이드림 제외-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성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듯 하였다. 하긴 일찍 나왔어도 연고제 때문에 묻혔으려나. 내 주위에는 의외로 연고제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아침 선전전에 안 나왔고 채플 선전전에서 망기적대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침 선전은 잘 되었나요?) 포스터도 많이 남았고..음.. 조금 더 붙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가로등에 붙어서 펄럭이던 천조각들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열심히 선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플랜 카드의 색깔도 좋았고. 장소가 잘못 쓰인 것이 하나 있었지만. 모든 것은 선전 자료가 늦게 온 탓이다?

3. 준비 과정

우리 조가 잘 돼서인지 나는 분담한 것이 무척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분담은 1학기 행사 평가 회의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나 싶다. (뭘, 내가 일을 안 해서 일 수도 있다.) 늘 하던 사람이 더 많이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이다.

4. 행사

개막 퍼포먼스- 참여 못함.

자보- 많은 수의 자보. 빨랫줄에 널린 빨래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였다. 그렇지만 역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효용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가 왔을 때 등등.. 왜 이번엔 줄에 걸었을까? 궁금.. (그리고 왕자보 걸기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읽을지도--..)

민주 광장 서명과 소망나무- 서명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심심치않을 정도로 와 주었던 것 같다. 소망 나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울 때 우리끼리 소규모로 쥐도 새도 모르게 태운 것은 행사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았을까. 잊고 싶은 소망을 '태워드립니다'가 아니라 '태웁시다' 아니었나? 공개적으로 태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나?

여성 지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꽤 보았다. 지저분해 지기는 했지만.

학관 로비 책 전시와 서명, 판매- 책 전시, 가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는 개별적인 책의 소개를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무리였겠지? 서명은 여기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워낙 울리는 복도라 서명하라고 소리 지르기는 어려웠다. 공예품 판매는 그럭저럭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비즈공예- 참여 못함.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강연- 개인 사정으로 월, 화요일 강연 두 개를 듣지 못하였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들었다.

수요일 강연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다. 사람도 많이 왔었던 것 같고. 장소가 바뀐 것은 유감이지만.

목요일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다지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갈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본 사람들이 꽤 있어서 다행이었던 한편 신기하기도 했다.

5. 정리

정리를 일찍 시작하였고 비교적 일찍 끝냈다. 1학기 때와 달리 사람들이 뺏지 않고 뒤풀이에 간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청소는 돕지 못하였다.

6. 마지막

나는 준비도 많이 함께 하지 못하였고 행사도 반쪽만 참여하여서인지 내 눈에는 이번 여성제가 무척 멋져보였다. 평가 문서를 쓰는 것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